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2017년 3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8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3. 27. (월)	담당부서	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총괄팀
담당과장	정재환 팀장 (044-203-4551)	담 당 자	서성민 사무관(044-203-4552)

산업부, 민관공동으로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 진행상황 점검
- 제2차 ASEM 경제장관회의 자문단 회의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올해 **9. 21.~22. 서울에서 열리**는 2017년 아시아-유럽정상회의(아셈: ASEM) 경제장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**3. 28.(화)** 더 플라자호텔에서 **「제2차 아셈 경제장관회의 자문단 회의」를 가졌다.**

< 제2차 아셈 경제장관회의 자문단 회의 개요 >

◈ 일시/장소 : '17.3.28(화) 11:30~13:00, 더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

◈ 회의내용 : 2017년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최 준비점검 및 예상의제 논의

◈ 참석자 : (산업부) 주형환 장관(주재), 통상차관보, 통상정책국장, 아셈경제장관회의(ASEM EMM)준비기획단장 등
(자문단) 연구기관, 통상전문가, 업계 자문위원 등 10명

○ 오늘 회의는 작년 8월 "제1차 아셈(ASEM) 경제장관회의 자문단 회의" 개최 이후 **그간 행사 개최 및 의제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**하고, **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**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

□ 주형환 장관은 "아셈(ASEM)은 **1996년 창설**한 이래로 **회원이 26개에서 53개로 확대**되고, **2015년** 기준으로 **전세계 교역 비중이 64%를 차지**할 만큼 **중요성을 지닌 지역협의체**로 성장했다." 라고 설명하고,

○ “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**10여년 이상 경제장관회의가 중단**된 아쉬움이 있어 지난해 **우리나라가 아셈(ASEM) 경제장관회의를 재개를 제안**했고 **회원국들의 지지**를 통해 **한국에서 개최**하게 되었다“고 개최배경을 밝혔다.

□ 특히, 주장관은 “최근 **보호무역주의 확산**으로 인한 **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**가 있고, **4차 산업혁명**으로 인한 **무역·투자, 고용, 국제분업 구조 등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**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12년 만에 재개되는 **아셈(ASEM) 경제장관회의**는 **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**를 지니고 있다”고 말하고,

○ “이번 아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**①무역투자 원활화 ②경제연계성 강화 ③지속가능한 성장**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, 특히, 최근 **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다자무역체제지지 확보**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□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**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**에서 아셈 **경제장관회의의 중요성**과 **발굴한 의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며, 50여개 선진국과 개도국**이 함께 모이는 회의인 만큼 발굴한 **의제가 성과로 연결**되기 위해서는 **세심한 준비 전략이 필요**하다고 지적했다.

□ 주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“**상호존중과 번영, 동등한 파트너쉽**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한 **ASEM의 기본정신**을 되살려,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**공동의 목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** 한국이 금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**길잡이(pathfinder) 역할**을 해야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산업부는 의제 내용에 대한 **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**해, 오는 **4. 28. 서울**에서 「아셈(ASEM) **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(SOMTI)**」를 통해 **회원국 의견수렴**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총괄팀 서성민 사무관(☎ 044-203-45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회의 개요**

□ 회의 개요

○ **일시** : ’17. 3. 28일(화) 11:30～13:00

○ **장소** :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

○ **참석자** : **산업부 장관**(주재), ASEM 경제장관회의 자문단, 통상차관보, 통상정책국장,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 등

□ 논의 안건

○ ’17년 ASEM 경제장관회의(EMM) 개최 준비현황 및 계획 논의

-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**①무역·투자 원활화 ②경제연계성 강화 ③지속가능한 성장** 등 의제 세부초안 의견 수렴

□ 회의 진행 ※ 모두말씀까지 공개

시 간	내 용	비고
11:30-11:40	모두말씀	장관
11:40-11:50	추진경과 및 의제초안 보고	준비기획단장
11:50-12:50	토론	전체
12:50-13:00	마무리말씀	장관

참고 2 **참석자 명단**

구분	성명	소속 및 직위
학계	박태호	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
	안덕근	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
	채 욱	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
	김지홍	KDI 정책대학원 교수
연구기관	현정택	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
	김준경	한국개발연구원 원장
	유병규	산업연구원 원장
	이창운	한국교통연구원 원장
	강하연	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장
경제계	김정관	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

참고 3 **ASEM (Asia-Europe Meeting) 개관**

1. 개 관

□ **창설** : 아시아-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의체로서 '94년 창설

□ **특징** : 별도 사무국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합의 도출

□ 3대 협력 분야

○ 정치대화 : 정치 및 안보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

○ 경제협력 : 상호 무역 및 투자확대 추구

○ 사회·문화 협력 : 인적 교류확대, 상호 이해증진, 문화적 유대 강화

□ **ASEM의 위상** : 세계 인구의 59%, 교역량의 65%, GDP의 57% 차지

2. 회원국 (51개국 + 2개 지역협의체)

□ **아시아(22)** : 한국, 중국, 일본, 몽골, 인도, 파키스탄, 호주, 뉴질랜드, 러시아, 방글라데시, 카자흐스탄(이상 NESA 11개국) 및 ASEAN 10개국 + ASEAN 사무국

□ **유럽(31)** : EU 회원국 28개국 + 스위스, 노르웨이 + EU집행위

3. 주요 회의

□ **정상회의** : 제1차 정상회의('96년, 방콕) 개최이후 매 2년마다 개최

* 제11차 정상회의('16.7월, 몽골 울란바토르)

□ **장관회의** : 외무장관, 재무장관, 경제장관회의 등이 매 2~3년마다 개최

※ 한국 개최 실적 : '00년 정상회의(서울), '08년 재무장관회의(제주), '16년 문화장관회의(광주)

□ **조정국*회의** :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 수행

* 아시아 :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(NESA) 1개국 + ASEAN 국가 중 1개국
  유 럽 : EU 집행위 + EU 순환 의장국

※ '17.3월 기준 조정국 현황 : 뉴질랜드, 필리핀 / EU 집행위, 몰타

참고 4 **ASEM 경제장관회의 개관**

1. ASEM 경제장관회의

□ **(목적)** 아시아-유럽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·투자의 원활화, 산업협력, 민간기업과의 교류증진 등 양 지역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

□ **(참석대상)** 51개 ASEM 회원국 경제·통상장관 및 2개 지역협의체(EU·ASEAN) 담당관

□ **(개최연혁)**

시기 · 장소	주요 논의의제
제1차, 97년 마쿠하리	아시아-유럽 경제관계 / 무역·투자 / WTO / 인프라 개발 / 지속가능한 경제성장
제2차, 99년 베를린	아시아-유럽 경제관계 / WTO / 향후 계획
제3차, 01년 하노이	아시아-유럽 경제관계 강화, WTO / 세계경제
제4차, 02년 코펜하겐	아시아-유럽 경제관계 / DDA 협상 지원 / ASEM 경제협력의 미래방향 / 세계경제
제5차, 03년 대련	DDA 협상지원 / 경제협력 / TFAP · IPAP / 세계경제
제6차, 05년 로테르담	아시아-유럽 경제관계 / DDA협상 지원 / 세계경제의 기회와 도전 ⇨ "경제장관회의 관련 고위급 회의"로 대체하여 개최

2. 2017 ASEM 경제장관회의

○ **(개최시기/장소)** 2017년 9월 21일~22일 / 서울

○ **(주요 의제)** 무역·투자 원활화, 경제연계성 강화, 지속가능성장 등